

사르트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간파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절망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절망  
절대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오는 절망

한해, 두해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절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기 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연유한다.

어느 공식적인 모임에서 한 비평가가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 비평가가 기대하는 답은 아마도 건축의 계몽적인 측면, 건축가로서 우리가 사회에 해야하는 의무 등을 환기시키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

##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묻거든

If You are Asked the Reason of Doing Architecture

이필훈 /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Pill-Hoon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아픔과 절망감을 알지조차 못하는, 건축을 출세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뜨내기 아류들이 자신의 편협하고 납작한 건축관을 순수함으로 가장하기 위해 그렇게 쉽게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물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단순하고 용감한 질문에 돈키호테 같은 답을 할 수 밖에 없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고고하게 산위에서 얼어 죽으려고 건축을 한다.

그렇게 얼어 죽으려고 계속 미끄러지기를 하고 있다"고

이밀었다.

불혹의 나이에 직업 선택의 여지가 바늘 구멍만할때 왜 그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도대체 얼마만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일까?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일까 혹은 참을 수 없을만큼 무거운 것일까?

어렸을 적 왜 사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치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생존과 생활의 의미를 평가하던 실력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해도 결과는 똑같다.

끝 · 없 · 는 · 절 · 망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왜 사느냐는 질문을 회색시킬 수 있지만 건축은 내가 선택했기에 왜 하느냐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건축을 선택할 당시 건축에 대한 그럴듯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다.

나 역시 그런 평범한 인간중의 하나였다.

일차적으로 왜 건축을 해왔냐 하면 얼떨결에 선택한 건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건축을 해왔다. 당구도 잘치는 놈이 더 재미있어 한다고 건축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 주위를 둘러싼 신화를 배웠고 그 깊이와 난해함에 견잡을 수 없이 빠져 들었다.

한참 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높속에 온몸이 빠져 있었고 해는 한참 저물어 있었다. 그런 나에게 왜 건축을 했냐고 묻지 않고 왜 건축을 하냐고 물으면 그 질문의 현재성 때문에 정확히 대답할 말이 없다.

지금 건축을 하는 이유는 분명 이때까지 건축을 해 왔기 때문이고 앞으로 계속 건축을 하는, 아니 해야 하는 이유는 높속에 빠져있어 달리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높속에는 건져먹을 빵부스러기들이 조금은 남아있어 당분간 굶어죽을 걱정은 없다.

사실 왜 건축을 하느냐는 식의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화두이다. 그러면 그 질문은 자신속에 포장되어 있던 위선적인 건축가의 모습을 여지없이 부숴뜨릴 것이다.

그것은 남에게 함부로 던질 질문이 못된다. 그 질문에 담고 있는 절망감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자신의 건축에 대한 생각과 이상을 전개하기 위한 '여는 말' 짚으로 그 질문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건축철학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그는 분명 왜 건축을 하는지에 대해 말로 풀어 떠들만한 깊이의 사고 밖에는 가지지 못했을 테니까.

사실 왜 건축을 하느냐하면 아니, 정확히 왜 건축 비스한 것을 하느냐 하면 진짜 건축을 하기 위해서이다.

## 미 · 꼬 · 리 · 지 · 기

건축을 향해 기어올라갈 때마다 미끄러지는 나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에 대한 절망.

치유할 수 없는 절망은 눈과 빵부스러기 등의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

건축을 왜 하느냐고 쉽게 묻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축은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을까?

눈높이 짚, 허리높이, 혹은 발 밑에?

건축을 한손으로 붙잡고 막 휘둘러 사회와 도시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건축위에 올라타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녀 부자도 되고, 책도 내고, 스타도 되고-

나에게 그렇게 높은 존재로 군림하는 건축과 그들이 아는 건축은 같은 건축일까?

어차피 종교의 가장 큰 이상적 주제와 유행가의 주제도 '사랑'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존재한다.

중심성이 상실된 세계, 고귀함·우아함의 통념이 깨진 세계, 진짜와 가짜가 비빔밥처럼 뒤범벅되어 있는 세계에서 건축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높이로 존재하는 것인가? 실제로 존재는 하는 것일까?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럽게 오염된 이 바닥에서 건축은 이미 사라져 버린다면 왜 건축을 하느냐는 질문은 얼마나 코미디이며 나의 오르려는 몸짓은 또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진지한 질문과 진지한 몸짓이 한없이 웃기는 것으로 변한 사회.

## 키 · 치

건축에도 키치가 난무한다.

건설적인 아방가르드는 어느덧 사라지고 표피에 달라붙으며 모습 바꾸기를 계속하는 키치.

듣기싫은 유행가를 계속 들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안에서 중얼거리게 되듯 그리는 선 속에서 언뜻언뜻 그 모습을 들어내는 수많은 건축적 키치들.

예술형식이 감각적 물성 혹은 물신성을 그 존재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표피적 변화에 어느 부분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건축에는 삶·희망의 베끼기가 아닌, 죽음·절망의 베끼기가 스며들고 있다.

그렇게 건축이 질식해가고 수없는 유사건축이 생성되기에 오히려 건축을 휘두르고, 올라타기가 훨씬 쉬워졌고 정말 아무나 건축을 껌 씹어대듯 씹고 또 뱉어 내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아픔과 절망감을 알지조차 못하는, 건축을 출세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뜨내기 아류들이 자신의 편협하고 낯작한 건축관을 순수함으로 가장하기 위해 그렇게 쉽게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물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왜 건축을 하느냐고 다시 물을 자신이 있다면 다시 물어 보아라.

그렇다면 그 단순하고 용감한 질문에 돈키호테 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고고하게 산위에서 얼어 죽으려고 건축을 한다.

그렇게 얼어 죽으려고 계속 미끄러지기를 하고 있다”고.